

국내외 문화적 맥락에서의 자기결정에 대한 이해 및 현장 적용을 위한 고찰: 장애학생의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및 영향요인에 관한 국내외 문헌 중심으로

이숙향(李叔香)*

논문 요약

장애학생의 자기결정 증진은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상의 실제로 간주되고 있다. 자기결정이 서구 문화에 근간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각 나라의 문화적 토대에서 자기결정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자기결정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화적 맥락에서의 자기결정에 대한 장애학생, 부모, 교사의 인식 및 자기결정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기결정의 국내 특수 교육 현장으로의 적용과 미래 연구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및 영향요인을 다룬 국내외 논문들 중 최종 선정된 총 24편의 논문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1)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동향, 2) 국내외 문화적 맥락에서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3)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학생의 자기결정 증진을 위한 현장적용과 미래 연구들을 위한 제언들을 제시하였다.

■ 주요어 : 자기결정, 장애학생, 다문화, 인식

*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전임강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장애학생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질과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전환의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기결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다(Ward & Kohler, 1996; Wehmeyer, Agran, & Hughes, 1998; Wehmeyer & Palmer, 2003, Wehmeyer & Schwartz, 1997). 1990년대 초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을 위한 자기결정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이 본격화 된 이래로(Ward, 1996), 특히 최근에는 장애학생의 성인기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교육과정 접근 증진을 위한 중요한 교수 전략으로서의 자기결정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Lee & Wehmeyer, 2007; Wehmeyer, 2007; Wehmeyer, Field, Doren, Jones, & Mason, 2004). 국내에서도 자기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들이 2000년을 기점으로 활성화 되었다(이숙향, 2008).

자기결정은 한마디로 정의 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개념으로 연구자마다 다소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보완된 정의로, Wehmeyer(2005)에 의하면 “자기결정행동은 자신의 삶의 일차적 원인 주체(causal agency)로서 행동 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의지적인(volitional) 행동들을 칭한다.”(Wehmeyer, 2005, p.117). 연구자마다 자기결정의 정의와 자기결정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자기결정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런 견지에서 자기결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가정이 전제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Wehmeyer & Field, 2007). 첫째, 자기결정 증진은 모든 학생, 즉 비장애학생들 뿐만 아니라 중도장애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장애학생들에게 중요하다. 둘째, 자기결정 증진을 위한 교수와 노력은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자기결정 증진을 위한 교수는 일반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일반학급안에서 통합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기결정은 개인의 기질과 능력,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Stancliffe, 2001), 개인이 속한 가족의 신념과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적용되어야 한다 (Frankland, Turnbull, Wehmeyer, & Blackmountain, 2004; Turnbull & Turnbull, 1996, 2001; Zhang & Benz, 2006). 특히 미국과 같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가치관을 가지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문화적 맥락에서 자기결정을 이해하는 것이 더 강조되고 있으며, 다문화적 배경 안에서 장애학생의 개별적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교사의 문화적 대응역량을 키우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들이 이루어졌다(Harry, Rueda, & Kalyanpur, 1999; Rogers-Adkinson, Ochoa, & Delgado, 2003; Zhang & Benz, 2006). 미국 특수아동협회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의 대표 학술지 *Exceptional Children*의 2008년 최근 특집호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장애학생들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도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장애학생들의 서로 다른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적 맥락에서 자기결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은 비단 다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외국에서만 중요한 과제가 아니다. 다음에 논의할 몇 가지 근거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문화적 맥락에서 자기결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첫째, 자기결정의 정의가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서구적 문화 가치에 근간을 두고 개발되었다는 것이다. MacGugen(1991)은 자기결정의 정의가 “백인, 서양, 선형(linear), 산출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문화적 맥락에서의 자기결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나바호족(미국 뉴멕시코, 애리조나, 유타주에 사는 원주민) 가족과 장애관련 문헌들을 분석하여 자기결정행동 구성요소들이 나바호족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백인문화 관점에서 자기결정과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지 조사한 Frankland et al.(2004)의 연구는 서양 백인주류 문화와는 다른 미국 원주민의 문화적 맥락에서 자기결정을 이해하려 한 좋은 예이다. 서구문화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이나 중국, 다른 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 개인보다 가족이나 집단의 이익과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것이 미덕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도 우리의 문화적 맥락에서 자기결정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물론 사회가 급격히 서구화 되어 감에 따라 서구화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신세대와 기존의 가치관을 유지하려는 구세대간의 세대차가 더 심해지고 있지만, 적어도 오랜 시간동안 개인이 아닌 가족과 집단의 가치가 우선시 되어온 우리의 문화적 맥락에서 서양의 가치에 뿌리를 둔 자기결정의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이해와 적용에 있어서 가치의 대립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즉, 우리의 문화적 맥락에서 자기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적 맥락에서 자기결정을 이해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 등의 증가로 우리 사회가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김경숙, 안은영, 이영선, 2008; 이지혜, 채재은, 2007).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7,998명이고, 이중에 87.4%의 아동들이 초등학생들로,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강순원, 2008; 김지현, 2008), 교육과학기술부의 7차 교육과정정보완을 위한 “새 교육과정”에서 다문화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급격히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라의 다문화 교육의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셋째, 무엇보다도 자기결정의 개념을 국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 있는 위험한 함정을 피하기 위해 자기결정을 우리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Browder, Wood, Test, Karvonen과 Algozzine (2001)는 자기결정과 관련된 문헌들을 분석하여 교사들이 자기결정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중요한 개념적 지침을 소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자기결정의 개념을 교육현장에 적용하는데 있어 피해야 할 다섯 가지 함정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도 가치 있게 여길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 2) 문화적 차이를 무시하는 것, 3) 가족과의 협력을 무시하는 것, 4) 자기결정을 위한 선수 기술을 요구하는 것, 5) 사회적인 환경을 무시하는 것. 즉, 자기결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있어서 개인과 가족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자기결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 있는 함정을 피하는데 중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자기결정의 개념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거쳐야 할 중요한 절차상의 단계를 고려할 때, 자기결정을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 할 필요가 있다. Ohtake 와 Wehmeyer(2004)는 일본 특수교육연구체계를 분석하여 자기결정의 개념을 일본 특수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모델로 다음 네 가지 단계를 제시하였다(p. 176).

- 1) 도입하고자 하는 자기결정의 개념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해해야 한다.
- 2) 도입한 자기결정 이론과 전략들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가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내기 위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교육적 실체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가치를 탐색해야 한다.
- 3) 어떻게 자기결정이 기존의 이론과 실체에 더해질 수 있을지 명확히 하기 위하여 두 나라 사이의 유사점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4) 서로 다른 가치에 준하여 자기결정을 실행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능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Ohtake 와 Wehmeyer가 제시한 모델은 자기결정을 다른 문화권에 적용하기 위해서 자기결정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자기결정이 자국의 고유 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탐색하며 문화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비단 일본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론을 우리 문화에 적용할 때, 즉 자기결정의 이론 및 전략들을 국내에 도입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근거들을 종합할 때 자기결정의 개념을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자기결정을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기결정이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전통과 정서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는 지, 이와 관련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숙향(2008)이 지난

10여년 동안의 자기결정과 관련된 총 67편의 논문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전환 및 일반교육 과정을 위한 자기결정의 영향과 효과적인 적용방안을 고찰하면서,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관련 논문들도 분석에 포함하긴 하였지만, 이 문헌연구에서도 우리 문화적 맥락에서의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이나 영향요인을 심도 깊게 다루지는 못하였다. 문화적 맥락, 즉 사회적, 물리적 환경들이 사건이나 사람들의 인식과 인식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Nisbett & Miyamoto, 2005; Turnbull & Turnbull, 1996, 2001), 우리 문화적 맥락에서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요인을 비롯한 기타 영향요인들에 대해 고찰해 보고 이를 국외의 문헌들과 비교하여 보는 것이 우리의 문화적 맥락에서의 자기결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화적 맥락에서의 자기결정에 대한 장애학생, 부모, 교사의 인식 및 자기결정 영향요인 분석을 토대로 자기결정에 대한 이해 및 한국 특수교육 현장으로의 적용과 미래 연구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위에서 제기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화적 맥락에서의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및 자기결정 영향요인들과 관련된 문헌들의 분석을 통해 아래 연구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의 자기결정의 현장적용 방안 및 미래 연구에 주는 시사점들을 찾고자 한다.

- 1) 국내외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동향은 연구주제, 대상, 방법들에 따라 어떠한가?
- 2) 국내외 문화적 맥락에서의 자기결정에 대한 학생, 부모, 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 3) 국내외 문화적 맥락에 따라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II. 연구방법

1. 분석 문헌 선정

본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및 자기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한 문헌들을 선정하였다.

- 1) 1990년에서 2007년까지의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우리나라에서 자기결정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된 것은 2000년 대 들어서지만(이숙향, 2008) 미국에서의 자기결정의 연구가 활성화되었던 시기가 1990년대 초였음을 고려하여(Ward, 1996), 1990년부터의 문헌을 포함)
- 2) 주요 국내 데이터베이스-ERIC, ProQuest Education Journals, Google scholar,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DBpia, 국회전자도서관, KERIS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KISS에서 검색이 가능한 논문
- 3)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로, 장애학생, 부모, 교사를 조사대상으로 한 논문
- 4) 자기결정과 관련하여 가족참여 및 문화적 요소, 전환과 관련된 인식을 함께 조사한 것을 포함하되 논문제목에 명확하게 자기결정이 언급된 논문
- 5) 다음과 같은 주제어로 검색된 논문: self-determination, culture, disabilities, concept, perception, multicultural, 다문화, 자기결정, 특수교육, 장애, 인식, 교육 등의 주제어 및 이들의 주제어들의 결합
- 6) 검색된 논문들의 참고문헌을 통해 재검색된 관련 논문

본 문헌 기준에 의한 일차 검색결과에서 약 45편의 논문들이 검색되었으나, 연구목적과 연구문제를 고려하여 자기결정에 대한 장애학생, 부모, 교사의 인식 및 자기결정 영향요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조사연구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자기결정 관련 문헌연구에서 이미 다루어졌던 중재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나, 그 외 자기결정에 대한 문화적 이해에 중점을 둔 논문들에 대한 문헌연구, 관련 이론들을 주로 소개한 논문이나 역사적 관점을 고찰한 문헌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에도 아래 예외 기준에 해당되는 논문들을 제외하여 최종 24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 1)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이 불가능한 외국논문
- 2) 참고문헌에 영문제목으로 기술이 되어 있더라도 원 논문이 자국저널에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기록되어 읽을 수 없는 외국논문들
- 3) 중도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예: 자궁경부암으로 지체장애가 된 환자들의 자율성을 연구한 네덜란드 문헌)

2. 논문 분석 변인 및 자료 분석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들을 토대로 최종 선정된 24편의 논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변인들을 사용하여 문헌을 분석하였다.

1) 연구동향 관련 변인

연구동향 관련 변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증거들인 연구 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의 세 가지 변인을 사용하였으며(이은혜, 이미리, 박소연, 2006) 이러한 변인에 대한 설명 및 구체적인 선택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 최종 선정된 논문들은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들에 준하여 일차적으로 두 가지 연구주제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주제는 국내외 문화적 맥락에서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둔 논문들이었으며(국가 간 문화비교, 다문화권내의 타문화비교 포함), 두 번째 주제는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것으로 넓게는 문화적 요인과의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국내외 비교를 위하여 이 두 가지 주제를 각각 국외, 국내 문헌들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특히 국외 논문의 경우, 어느 문화권을 주로 다룬 연구인지도 조사하였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에 따라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구대상은 크게 학생, 부모, 교사, 기타(학생, 부모, 교사 중 두 집단 이상을 동시에 대상으로 한 논문)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 연구방법: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과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조사연구 논문만을 선정하였으며, 인식론적 접근방법에 따라 질적연구와 양적연구 접근의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성태제, 시기자, 2006). 질적연구의 경우는 자료수집방법에 따라 개별면담, 포커스그룹면담, 기타(면담이나 관찰 그 외 다른 자료들을 함께 분석)의 세 가지 변인으로 분석하였다. 양적연구는 질문지를 개발한 설문조사와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통한 설문조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 국내외 문화적 맥락에서의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앞에서 언급한 연구주제 분류의 첫 번째 주제인, 자기결정에 대한 이해 및 인식에 초점을 둔 논문들을 국내외 문화적 맥락에서 비교하되, 장애학생, 부모, 교사의 입장들을 총괄하여 분석하였다.

3) 국내외 문화적 맥락에서의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에서 소개한 두 번째 주제인,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국내외 문헌들로 따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여,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내에서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3. 신뢰도

분석자간 신뢰도는 본 논문 분석의 일차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 연구주제별 분석과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으로 따로 나누어 산출되었다. 연구주제별 분석을 위한 신뢰도 산출을 위해 본 연구자와 특수교육과 박사과정생 1명이 최종 선정된 총 24편의 논문을 국내, 국외로 분류하여 위의 두 가지 주제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한 뒤 신뢰도 산출공식 $\{(일치된 수 / (일치된 수 + 불일치된 수)) * 100\}$ 에 의해 산출하였다. 국내, 국외, 각 주제에 대하여 산출된 신뢰도의 범위는 86%-100%였으며 평균 신뢰도는 97%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불일치를 보였던 논문의 주제들은 분석 후 합의하여 일치된 견해를 얻었다. 연구주제별 분류에 대한 신뢰도 외에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에 대한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각 연구 주제 별로 해당 주제의 약 30%에 해당되는 논문들을 무작위로 표집하여 총 7편(총 논문의 약 29%)의 논문들에 대해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에 대한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과 방법에 대한 신뢰도는 100%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III. 결과

앞에서 제시한 논문 분석 변인들을 이용하여 1)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동향, 2)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3)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련된 분석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동향에 대한 분석 결과

1) 연구주제

최종 선정된 24편의 논문들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크게 다음 두 가지 주제로 분류되었다: (1)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2)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두 가지 주제를 국내외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논문들이 14편 (58.3%)으로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한 10편(41.7%)의 논문보다는 많은 편이었으나 이러한 경향은 국내, 국외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국내 논문의 경우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6편으로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및 이해에 대한 논문(4편)에 비해 많았으나, 반면 국외논

<표 1> 연구주제에 따른 국내외 문헌 분석

연구주제	국내	국외	합계 (%)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4	10	14 (58.3)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	4	10 (41.7)
합계(%)	10 (41.7)	14 (58.3)	24 (100)

문들은 자기결정 요인들에 대한 논문이 4편인데 비해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관련 논문들이 10편으로 자기결정 영향요인을 조사한 논문들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국외논문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국가 간 비교(타이완과 미국)를 한 연구가 1편(Zhang, Wehmeyer, & Chen, 2005), 미국내 다문화권의 대상들을 통해 백인과 아시아인을 비교한 논문들이 3편(Leake, Boone, 2007; Trainor, 2005; Zhang, 2005)으로, 즉 14편 중 4편(28.6%)의 논문만이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및 이해와 관련하여 국가 간, 혹은 문화 간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에 따른 국내외 문헌 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었다. 국내외 논문의 구분 없이 연구대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학생을 주 조사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 24편 중 13편(5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총 2,364명이었다. 반면 24편 중 1편(4.2%)의 연구만이 부모(장애학생의 부모 27명과 비장애학생 부모 109명)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Zhang, 2005). 교사를 주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은 총 4편으로(16.7%) 총 1,893명의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교사가 주 연구대상인 논문의 경우 국내외 연구 모두에서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일반교사의 참여는 없었다. 학생, 부모, 교사들 중 두 가지 이상의 집단을 모두 조사한 기타의 범주에 들어가는 논문은 6편(25%)이었다. 이 중에서 부모, 교사 모

<표 2> 연구대상에 따른 국내외 문헌 분석

대상	국내		국외		합계 (%)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자기결정 영향요인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자기결정 영향요인	
학생		6	4	3	13 (54.2)
부모			1		1 (4.2)
교사	2		2		4 (16.7)
기타	2		3	1	6 (25.0)
합계(%)	4 (16.7)	6 (25.0)	10 (41.7)	4 (16.7)	24 (100)

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3편, 학생, 부모, 교사 모두를 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이 3편이었다. 기타에 해당되는 연구에는 부모와 특수교사, 일반교사를 포함한 연구도 있었다(Grigal, Neubet, Moon, & Graham, 2003).

국내논문들을 살펴보면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논문이 4편이었으며, 교사를 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편으로 총 605명의 특수교사가 참여하였으나, 학생과 부모를 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었다. 기타에 해당되는 2편에 학생, 부모, 교사를 모두 포함한 연구와 부모, 교사를 포함한 연구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편의 논문(배성직, Wehmeyer, 2003)을 제외하면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조사에 학생을 포함한 연구가 한 편도 없었다고 할 수 있어 국외 논문들에 비해 학생들 자신의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가 부족했다.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국내 연구 6편은 자기결정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학생의 자기결정 점수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적, 혹은 외부적 영향 요인들을 조사한 연구들로, 모두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였다. 국내논문에 참여한 학생의 수는 총 1,397명으로 이중 430명이 일반학생이었다. 초·중·고 지체부자유 학생들이 참여한 연구(이정원, 정병국, 2006)와 초·중·고 학교급간에 따른 자기결정력을 조사한 연구(방명애, 2001), 장애유형별로 고등학생들의 자기결정력을 비교한 연구(김혜경, 2005)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참여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도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학생이었다.

국내의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논문들에 비해 국외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관련 논문들은 <표 2>에서 보듯이 연구대상이 학생(4편), 부모(1편), 교사(2편), 기타(3편)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그중에서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아 학생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외 논문 중에서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4편중 3편(75%)의 연구가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국내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학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및 자기결정 영향요인에 대한 국외 7편의 논문에 참여한 학생수는 총 967명이었으며 이 중 4편의 논문이 청소년들을, 3편의 논문이 대학생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대부분 정신지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학습장애를 주 대상으로 하는 논문도 2편 있었다.

국외 문헌들의 연구대상들이 속한 문화적 배경들을 살펴보면, 타이완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1편(Lin, 2005), 미국과 타이완 부모와 교사가 참여한 연구가 1편(Zhang, Wehmeyer, & Chen, 2005), 앞에서 언급했듯이 미국내 동일 문화권에서의 다른 문화를 가진 연구대상들을 비교하는 연구가 3편이었으며, 모두 백인과 아시아 문화 간의 인식차이를 비교하고 있었다. 그 외 50%의 논문들은(7편)은 백인 외에 연구대상으로 아시아계, 아프리카계, 라틴계 미국인을 모두 포함하였지만 이들 논문들은 다인종간의 비교가 목적이 아니라 다문화된 미국사회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자연스런 표집의 결과였다. 2편의 국외 논문들은 연구대상으로 어떤 인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3) 연구방법

최종 선정된 24편의 논문들은 모두 조사연구들로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로 <표 3>과 같이 분류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24편 중 19편(79.2%)의 논문이 양적연구로 양적연구가 질적연구(5편, 20.8%)에 비해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연구방법에 따라 국내외 논문들을 비교하였을 때 질적연구 5편은 모두 국외논문들로 자기결정과 관련된 인식을 조사하는 연구들이었으며 국내논문들은 주제와 상관없이 질적연구가 한편도 없었다.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관련 논문들 중 질문지를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한 연구들은 국내외 각각 4편, 5편으로 그 비율이 비슷했다.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은 모두 양적 연구를 사용하였으며 주로 장애학생의 자기결정력을 표준화된 검사도구로 측정하여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는 연구들이었다. 자기결정의 측정도구로는 국외 논문의 경우, AIR Self-Determination, Arc Self-Determination 등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자기결정 영향요인을 조사한 국내 논문의 경우, Arc Self-Determination을 청소년대상으로 표준화한 김정권, 조인수, 문태형, 김혜경(2000)의 “자기결정능력 검사” 청소년판, Self-Determination Teacher Perception Scale(TPS), 그리고 AIR Self-Determination과 자기인식 척도를 바탕으로 개발한 점검표등이 사용되었다.

<표 3> 연구방법에 따른 국내외 문헌 분석

연구방법		국내		국외		합계 (%)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자기결정 영향요인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자기결정 영향요인	
질적연구	개별면담			2		2 (8.3)
	포커스그룹면담			2		2 (8.3)
	기타			1		1 (4.2)
양적연구	설문조사 (질문지)	4		5		9 (37.5)
	설문조사 (표준화도구)		6		4	10 (41.7)
합계		4 (16.7)	6 (25.0)	10 (41.7)	4 (16.7)	24 (100)

2. 국내외 문화적 맥락에서의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자기결정에 대한 이해 및 인식에 초점을 둔 논문들을 국내외 문화적 맥락에서 비교하되, 장애학생, 부모, 교사의 입장들을 총괄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분석과정에서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주제들이 도출되었다. 1) 자기결정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2) 자기결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기회제공 및 실행도 사이의 격차. 이 외 장애학생, 부모,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소개한 논문들은 다음 장의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도 다시 다루고자 한다.

1) 자기결정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대다수의 학생, 부모, 교사들은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자기결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전환교육의 실행적 측면에서 자기결정의 중요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Grigal et al.(2003)은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중도 및 경도 고등학생들의 부모, 일반교사, 특수교사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부모, 교사 모두 자기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지지 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특히 부모의 경우, IEP에 대한 학생참여, 자기결정 지도, 선택하기와 학생의 흥미표현을 위해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것에 교사들 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교사들의 경우, 자기결정에 대한 지식, 자기결정을 학습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나, 교사들은 자기결정에 대해 익숙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기회를 많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했다. 자기결정 기술의 지도, 자기결정 관련 특징 및 이점들과 관련된 교사들의 가치관을 묻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대부분의 교사들이 자기결정이 장애학생의 전환과 삶의 질에 있어서 교육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자기결정에 따른 장점들을 보고 하였다(Agran, Snow, & Swaner,1999; Wehmeyer, Agran, & Hughes, 2000).

국외논문 뿐 만 아니라 국내 논문들을 통해서도 장애학생, 부모, 교사들이 자기결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지체학생의 전환계획과 자기결정력에 대한 부모, 교사의 인식수준을 비교한 박성우, 김창호(2003)의 연구에서도 IEP를 계획할 때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고, 자기결정력의 필요성 및 목표설정 기술에 대한 교수의 필요성에 부모와 교사가 모두 긍정적 이었으며, Grigal et al.(2003)의 연구에서와 같이 부모가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기결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교수 실태들을 조사한 국내 연구들도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특수교사들이 자기결정 및 자기결정 교수의 중요성에 대해 높이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오정민, 박은혜, 2003; 유애란, 2003).

정리하면 국내외의 연구 모두에서 장애학생의 부모와 교사들이 자기결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기결정 기술들이 IEP 계획 시에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기결정행동의 하위구성요소들의 중요성을 평가하는 부분은 국내외의 문헌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Agran, Snow와 Swaner(1999)의 연구에서 특수교사들은 중요한 순서대로 선택하기, 자기선호도 표시하기, 문제해결이 중요하다고 보고했으며, Wehmeyer, Agran과 Hughes(2000)의 연구에서도 특수교사들은 자기결정의 구성요소 중에서의 의사결정, 문제해결, 선택하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국외연구에서는 일관성 있게 선택하기와 문제해결이 중요시 되고 있었다.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특수교사들도 선택하기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또한 많이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애란, 2003). 하지만 오정민, 박은혜(2003)의 연구에서는 자기옹호가 가장 중요시 여겨지고, 의사결정이 가장 덜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 양상이 보고되기도 했다.

2) 자기결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기회제공 및 실행도 사이의 격차

자기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부모와 교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나아가 자기결정 증진을 위한 중재 및 교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모두에서 자기결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반면 자기결정 증진을 위한 기회제공 및 교수실행도 낮아 둘 사이의 큰 격차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격차는 다음과 같이 국내외의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자기결정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인식과 함께 교수 실태를 조사한 국외 논문들은 이러한 현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Agran et al.(1999)은 69명의 특수교사 및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특수교사들이 모두 자기결정교수에 대해 지지하고, 자기결정의 여러 장점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IEP에 자기결정 기술을 통합해서 계획하는 교사가 별로 없음을 보고 했다. 자기결정과 관련하여 미국 전역의 1,219명을 대상으로 자기결정기술 교수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Wehmeyer et al.(2000)도 대부분의 교사들이 자기결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나, 실제적으로 자기결정기술을 지도하는 전략과 교수의 유형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중도장애 학생들의 경우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기결정 교수에서부터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하지 않는다고 하여 중도장애 학생들에 대한 낮은 기대가 자기결정 교수 부재의 원인임을 시사했다.

자기결정 증진을 위해 자연스런 환경 내에서 자기결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Trainor(2007)는 전환기의 학습장애 청소년 중 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자기결정에 대한 인

식을 조사하였으며 대부분의 여학생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자기결정력이 있다고 인지하였지만 자신들의 강점 및 요구와 그들의 목표를 서로 연계하지 못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기결정력이 계획을 위한 기회 제공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고등학교에서의 자기결정 교수 여부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자기결정을 위한 환경 내에서의 기회 제공 측면에 대해서는 부모, 교사, 학생 모두가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실제적인 기회제공에 대한 평가에서는 조금씩 의견을 달리하고 있었다. 특수교사, 부모, 학생들 자신의 입장에서 정서장애와 학습장애 청소년들의 자기결정에 대해 조사한 Carter, Lane, Pierson과 Glaeser(2006)의 연구에 의하며, 정서장애와 학습장애 청소년들의 교사와 부모들은 각 환경에서의 기회제공에 대해 서로 상대 쪽 환경에서 자기결정의 기회제공이 더 적다고 보고하여 학교와 가정간의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장애 남자 청소년들의 자기결정에 대한 조사결과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자기결정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며 오히려 집에서 자기결정에 대한 기회를 더 자주 접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Trainor, 2005).

자기결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와 적용을 위한 실행 사이의 격차는 국외 연구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269명의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전환교육에 있어 발달장애 학생의 자기결정에 대한 교사인식과 교수 실태를 조사한 유애란(2003)의 연구에 의하면, 상황이 주어졌을 때 반수이상의 교사가 자기결정기술을 지도하려고 하며 자기결정기술이 개별화교육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지만, 정작 지도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기결정과 관련된 특성이 약하고, 자기결정교수법을 지도받은 경험이 부족하여 자기결정 전략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초·중등 336명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자기결정에 대한 중요도 인식 및 교수실행도에 대해 조사를 한 오정민, 박은혜(2003)의 연구결과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장애학생, 부모, 교사들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자기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낮은 기대치, 자기결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 훈련의 부족함으로 현장에서 자기결정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국내외 문화적 맥락에서의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국내외 문헌들로 따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여,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내에서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학생의 자기결정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들을 조사한 연구 외에 앞에서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관련 논문들에서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루고 있는 연구까지 포함하였다.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학생변인, 교사변인, 환경변인, 문화-가족변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비단 장애학생의 자기결정력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에 대한 학생, 교사, 부모의 인식 및 자기결정의 실행도와도 상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영역들과 관련된 세부 변인들에 대한 국내외 비교는 <표 4>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 자기결정 영향요인에 따른 국내외 문헌 분석

영향 요인		국외 논문 저자	국내 논문저자	유사점	차이점
학생 변인	장애정도	Lin(2005), Grigal, Neubert, Moon, &Graham(2003), Wehmeyer, & Gamer (2003), Shogren, Wehmeyer, Palmer, Soukup, Little, Gamer, & Lawrence (2007)	방명애(2001)	√	√
	장애유형	Cater, Lane, Pierson, & Glaeser(2006)	김혜경(2005)	√	
	장애유무	Zhang(2005)	이정원, 정병국(2006) 김영표, 신현기(2003)	√	
교사 변인	교사 유형 및 경력	Grigal, Neubert, Moon, & Graham (2003)			
	교사기대	Grigal, Neubert, Moon, & Graham (2003), Wehmeyer, Agran, & Hughes (2000) Shogren, Wehmeyer, Palmer, Soukup, Little, Gamer, & Lawrence(2007)	오정민, 박은혜(2003) 배성직, Wehmeyer(2003)		
환경 변인	학교급간	Zhang, Wehmeyer, & Chen(2005)	유애란(2003), 이정원, 정병국(2006), 방명 애(2001)	√	
	학교 프로그램	Grigal, Neubert, Moon, & Graham (2003), Wehmeyer, Agran, & Hughes (2000) Shogren, Wehmeyer, Palmer, Soukup, Little, Gamer, & Lawrence(2007)	오정민, 박은혜(2003)	√	√
	외부환경 (고용/주거)	Wehmeyer & Bolding(1999)	박성우, 신현기(2003)	√	
문화- 가족 변인	인종변인	Lin(2005), Zhang, Wehmeyer, & Chen(2005) Zhang(2005), Trainor(2005)			
	가족변인	Leake & Boone(2007) Trainor(2005) Thoma & Getzel(2005)	이정원, 정병국(2006) 배성직, Wehmeyer(2003)	√	√
	사회경제적 변인	Zhang(2005) Trainor(2007)	김정권, 조인수, 문태형, 김혜 경(2001)	√	

1) 학생변인

학생변인과 관련해서는 장애정도, 장애유형, 장애유무 등의 변인들이 장애학생의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장애정도

국내의 연구들 모두 장애정도가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방명애(2001)는 314명의 초·중·고 정신지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지체정도와 학교급간이 학생들의 자기결정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지체정도와 학교급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지체정도와 자기결정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자기결정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타이완 정신지체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타이완 학생들의 자기결정력에 대해 조사한 Lin(2005)도 경도 정신지체일수록 자아실현 및 자긍심이 높다고 보고하여 장애 정도와 자기결정의 정적 상관관계를 지지하였다. 자기결정과 자율성에 미치는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 성인의 개인적 특성을 조사한 Wehmeyer와 Garner(2003)의 연구 결과에서도 최종도 장애인이 더 낮은 자기결정력을 보이는 것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지적 능력이 자기결정과 자율성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은 아니었고 오히려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느냐의 여부가 자기결정에 더 중요한 기여요인임을 보고하였다. 특히 장애학생의 지적능력은 고용과 주거환경에 대한 중요한 예측변인이었다. 학습장애, 경도, 중도 정신지체, 기타 건강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자기결정에 대한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조사한 Shogren, Wehmeyer, Palmer, Soukup, Little, Garner, & Lawrence(2007)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자기결정력은 능력과, 기회, 전환역량에 의해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애학생의 자기결정에 대한 기회제공이 개인의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Wehmeyer와 Garner(2003)의 연구와 달리 Shogren et al. (2007)의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이 주어지는 기회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개인의 능력변인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이 두드러졌다. 장애정도가 자기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장애정도에 따라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자기결정력의 기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며 여러 국내외 연구들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다(Grigal et al, 2003; Wehmeyer & Garner, 2003). 이는 장애정도가 장애학생의 자기결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교사변인에서 다루기로 한다.

(2) 장애유형

장애유형도 학생의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변인 중 하나이다. 김혜경(2005)은 고등학생의 장애유형별 자기결정 능력을 비교 분석 한 결과, 장애유형에 따라 자기결정 총점수와 자

율성, 자기규칙, 심리적 역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 하였다. 또한 학습장애 학생들의 자기결정력 총점이 가장 높고, 지체, 정신지체, 정서장애 순으로 자기결정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장애는 자기결정의 전 영역에서 점수가 가장 낮았다. 정서장애 학생의 자기결정력이 낮다는 것은 Carter et al.(2006)의 연구에도 드러난다. 특수교사, 부모, 학생들 자신의 입장에서 정서장애와 학습장애 청소년들의 자기결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기결정에 대해서 두 장애집단 간에, 그리고 응답자 집단 간에 견해차이가 있었다. 특히 장애학생들의 부모와 교사 모두가 정서장애 청소년들이 학습장애 학생들 보다 더 자기결정력이 낮다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교사들의 입장에서 이런 차이가 두드러졌다. 뿐만 아니라 정서장애 학생들은 학교나 집에서 자기결정행동에 참여할 기회도 적었다. 즉, 장애유형이 자기결정의 기회제공 여부와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장애유무

장애학생들의 장애유무, 즉 특수교육대상자인지 아닌지가 학생들의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국내외 문헌에서 모두 보고되었다. 일례로 일반아동 부모에 비해 장애학생의 부모인 경우는 자기결정행동 증진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지 않고, 일반학생들의 부모보다 아이들에게 더 통제적이었다(Zhang, 2005). 이정원, 정병국(2006)도 일반학생이 지체부자유학생보다 유의하게 자기결정력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격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자율성의 측면에서 이런 차가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신지체 고등학생의 자기결정 수준을 일반 고등학생과 비교하여 분석한 김영표, 신현기(2003)의 연구에 의하면, 정신지체 학생들의 자기결정 수준은 일반학생의 수준에 비해 낮고, 자율성, 문제해결, 심리적 역량이 부족하나 목표설정 및 달성, 자아실현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했다.

요약하자면, 비장애 학생보다는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이, 장애학생 중에서도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그리고 정서장애 학생일수록 자기결정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정도, 장애유형, 장애유무 등의 학생변인들이 장애학생의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및 기회제공 여부와도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사변인

문헌 분석을 통해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변인으로 나타난 세부 변인들은 교사유형 및 경력, 장애학생에 대한 교사기대 변인으로 나눌 수 있었다.

(1) 교사유형 및 경력

교사유형 변인은 사실 장애학생이 배치되어 있는 환경변인, 학생의 장애정도와의 밀접한 관

계가 있다. Grigal et al.(2003)의 연구는 교사유형과 교수경력이 학생의 장애정도와 교육프로그램의 종류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지 교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첫째, 대학진학이나 직업기술프로그램에서 경도장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우에, 특수교사가 일반교사보다 자기결정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있다. 둘째, 경도장애를 지도하는 교사들의 경우, 대학진학이나 직업기술지도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보다 지역사회중심 교수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우에 자기결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셋째, 10년 이상의 경력교사들의 경우, 중도장애를 지도한 교사보다 경도장애를 지도한 교사가 자기결정에 대해 더 알고 있다. 넷째, 중도장애 학생과 일을 하는 교사들의 경우, 10년 이상의 경력교사들보다 10년 이하의 경력을 지닌 교사들이 자기결정 개념에 더 익숙하다고 보고한다. 국내 논문들 중에서는 자기결정에 대한 교사유형 및 경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논문이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2) 교사의 기대수준

장애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수준에 따라 장애학생을 위한 자기결정의 기회제공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고려할 때, 교사변인은 자기결정의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여러 논문들이 교사의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인 중의 하나가 장애학생의 장애정도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경도 장애학생을 맡고 있는 교사가 중도 장애학생을 맡은 교사보다 자기결정에 더 익숙하였으며(Grigal et al, 2003), 장애가 심할수록 자기결정 기술 교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통합된 교육환경의 교사들이 자기결정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였다(오정민, 박은혜, 2003). 배성직과 Wehemyer (2003)의 장애학생의 전환과 관련된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에서는 졸업에 대한 학생 본인들의 기대가 부모나 교사보다 높아 장애학생에 대한 부모나 교사의 낮은 기대수준을 엿볼 수 있었다. 장애학생들에게 자기결정을 지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바로 이런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학생에 대한 낮은 기대치를 잘 반영한다고 하겠다(Wehmeyer, Agran, & Hughes, 2000). 자기결정이 주어지는 기회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개인의 능력변인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Shogren et al.(2007)은 이러한 연구결과가 장애학생들에 대한 낮은 기대로 인해 자기결정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교사들의 태도를 반영한다고 지적하면서 교사가 학생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3) 환경변인

학생변인과 교사변인 외에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가 환경변인이다. 환경변인은 다음과 같이 학교급간, 학교프로그램의 종류, 학교 외 고용 및 주거와 같은 외

부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학교급간

학교급간의 경우 초등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즉 장애학생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기결정이 더 중요시되고 있어 지원요구가 더 많고, 기회제공도 많았다. 다음의 국내외 논문들은 이런 사실을 잘 뒷받침 해준다. Zhang, Wehmeyer와 Chen(2005)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결정 증진에 있어서 미국과 타이완 부모와 교사들의 행동을 조사한 결과, 두 나라 모두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사와 부모가 초등학생의 교사나 부모보다 자기결정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이 참여 한다고 보고하였다. 유애란(2003)의 연구에서도 특수학교 전공과와 초등부간에 자기결정 지도에 따른 지원요구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장애학생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기결정이 더 강조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자기결정력의 격차가 커진다는 이정원, 정병국(2006)의 연구도 이와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방명애(2001)의 연구에서도 초등부와 고등부, 중학부와 고등부간에 통계적으로 자기결정기술에 대한 차이가 있었으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자기결정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2) 학교프로그램의 종류

앞에서 언급했듯이 학교프로그램의 종류는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 및 장애학생에 대한 교사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경도장애를 지도하는 교사들의 경우 대학진학이나 직업기술지도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보다 지역사회중심 교수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우에 자기결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Grigal et al., 2003). 또한 학생들이 어떤 교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가의 여부가 학생의 IEP참여에 대한 부모의 신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Wehmeyer et al.(2000)의 연구에서도 덜 제한적 환경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자기결정교수가 학생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학습환경에 따라 학생들의 자기결정력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 했다. 국내 오정민, 박은혜(2003)의 연구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고한다. 즉 특수학교의 교사들보다 통합된 교육환경의 특수학급 교사들이 자기결정에 대해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Shogren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급에 통합되어 있느냐는 여부가 자기결정능력을 예측하는 변인이 아니어서 이전 연구들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 학교 외 외부환경-고용과 주거

학교의 환경변인 외에 졸업 후 학교 밖에서의 환경변인, 즉 고용과 주거의 유형이 자기결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국내외 논문들에서 보고되고 있다. Wehmeyer와 Bolding(1999)은 정신지체 성인의 지능, 연령, 성별을 짝을 맞추어 집단변인을 통제한 후, 주거와 고용 환경만을 달리 했을 때 정신지체 성인들의 자기결정력에 대한 차이를 조사하였다. IQ를 비롯

하여, 연령과 성별이 통제되었을 때 지역사회 시설이나 비지역사회에서 거하면서 제한된 고용 기회를 가진 또래 장애인보다 지역사회중심환경에서 거주하며 더 나은 고용환경에서 일하는 장애인이 자기결정력이 더 높고 자율성과 선택의 기회 또한 더 많았다. 거주형태와 고용상태에 따른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에 대해 조사한 박성우, 신현기(2003)의 국내연구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즉, 고용상태에 있는 경도정신지체인은 미고용상태에 있는 정신지체인보다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이 높았으며 시설보다는 가정에 있는 경도정신지체인의 자기결정력이 높았다. 또한 자기결정력이 높을수록 삶의 질도 높았다.

4) 문화-가족변인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문화-가족변인들이 자기결정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한 결과, 인종변인, 가족변인(가족의 범위, 상호의존성 등), 사회경제적 변인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분석 될 수 있었다.

(1) 인종 변인

인종변인은 주로 다문화국가에서의 서로 다른 인종 및 문화 간의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비교, 문화가 다른 국가 간의 인식 비교를 다룬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우선 한국과 비슷한 동양문화권의 타이완의 경우를 살펴보면 의사결정의 주제 및 종류에 따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은 장애학생이 주체가 되나 중요한 결정 사항은 부모와 교사의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Lin, 2005). 자기결정증진과 관련하여 미국과 타이완의 부모와 교사들이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Zhang, Wehmeyer, & Chen, 2005), 미국교사들은 자기결정증진을 위한 행동에 타이완 교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여하고 있으나 미국 부모가 타이완 부모들 보다 자기결정 증진에 관여하는데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동양권 문화의 부모들이 자기결정 지도에 좀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 간 비교에 이어, 같은 나라안에 있는 여러 인종이 같이 생활하는 대표적인 다문화국가인 미국의 예를 살펴보면, 백인가족 및 비이민자의 아동들이 아시아계 미국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정의 아동들보다 개인적인 독립생활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Zhang, 2005). 그러나 아시아계 부모와 이민을 온 부모들은 동양문화에서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의 권위나 가족의 우선순위에 대한 강한 신념을 특별히 강조하거나 드러내지 않아 이전의 문헌들(Frankland, Turnbull, Wehmeyer, & Blackmountain, 2004; Turnbull & Turnbull, 1996, 2001)이 논의한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Trainor(2005)는 유럽계, 아프리카계, 라틴계 미국인 가정의 학습장애 남학생들의 자기결정에 대한 인지도와 행동을 조사함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이 전환과 관련 있는 자기결정과 자기결정 사용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동일 학교

문화의 영향으로 전환 및 자기결정에 대한 서로 다른 학생들의 문화차에 대한 영향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2) 가족 변인

Leake와 Boone (2007)은 자기결정의 증진 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이 미국문화에 근거함을 고려하여 자기결정에 대한 다문화적 관점을 학생, 교사 부모와의 그룹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족의 범위(핵가족뿐만 아니라 대가족)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장애학생들의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동양문화를 포함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의 학생들이 양육과정에서 자기결정에 대한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가족들일 수록 교육에 대해 매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데 전환 및 교육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본인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같은 가족내에서도 세대 간의 차가 나타나며, 독립성만큼이나 상호의존성이 강조된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흔히 선행연구들이 주장하는 대로 개인주의로 대표되는 서양문화, 집단주의로 대표되는 동양문화가 칼로 나뉘지는 것처럼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가족이나 국가, 문화 내에서도 개인의 개별적인 차이를 인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외의 논문처럼 심층면담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아니지만, 국내 논문에서도 가족변인과 관련된 연구를 찾을 수 있다. 지체부자유 학생과 일반학생, 이 두 집단 간의 자기결정력이 가족체제유형에 따라 상당히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이정원, 정병국(2006)의 연구가 그 예로, 지체장애 학생의 경우 극단가족형 특징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자기결정 증진에 있어서 학생들은 가족구성원 중 특히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다(Thoma & Getzel, 2005; Trainor, 2005). 이런 맥락에서 장애학생들에게 자기결정에 대한 바른 역할모델을 보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결정에 대한 기회를 적절히 제공하는 부모 및 가족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전환과 관련하여 국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배성직과 Wehmeyer(2003)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미국의 학생들과는 달리 우리 학생들은 졸업 후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교육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분명히 다른 우리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역할이 자기결정과 전환에 있어 중요함을 시사한다.

(3) 사회경제적 변인

사회경제적 변인은 환경변인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장애아동이 속한 문화-가족변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여기에서 다루기로 한다. 사회경제적 변인과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학벌, 소득이 장애학생의 자기결정 정도와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기결정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부모참여와 관련하여 문화적, 사회경제적, 아동의 특수교육여부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 Zhang(2005)은 학사학위를 가진 부모들이 아동들에게 자신의 흥미를 표현하고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고, 소득이 높은 가족들이 장애아동의 자기결정 기술촉진에도 더 많이 관여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부모의 학벌 및 가정의 소득이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 했다. Trainor(2007)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기결정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 했다. 국내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보고되었다. 김정권, 조인수, 문태형, 김혜경(2001)은 독립변인으로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가족 수, 수입, 그리고 종속변인으로 학생의 자기결정능력을 조사 했을 때,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자기결정력이 높다고 보고 했다. 이는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학생들의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자기결정력의 사회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경제적 요인이 결국 문화적 요인과도 연계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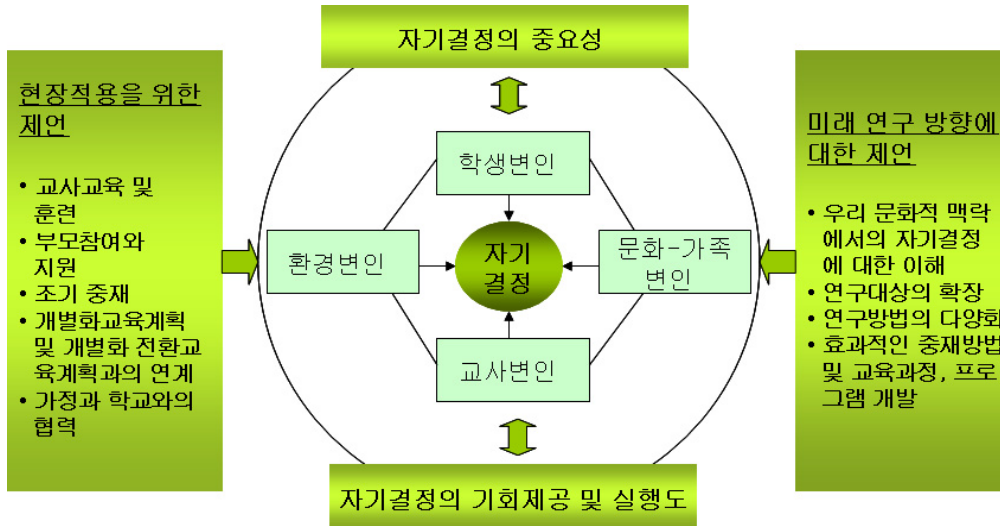
IV. 논의 및 제언

지금까지 국내외 문화적 맥락에서 자기결정에 대한 장애학생, 부모, 교사의 인식 및 자기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총 24편의 국내외 논문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문헌을 분석하면서 발견된 사실들을 앞에서 제기한 연구 목적과 연구문제를 고려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외 문화적 맥락에서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및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국내외 논문들을 분석한 결과, 국외 논문에 비해 국내 논문에서는 주 조사대상자로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부족하였으며, 특히 자기결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및 인식을 조사할 수 있는 질적연구가 시도되지 않았다.

둘째, 국내외 문화적 맥락에서 자기결정의 중요성 및 적용에 대한 학생, 부모,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자기결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학생, 부모, 교사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으며, 특히 자기결정 구성요소 중 선택하기는 국내외 모든 문헌들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학생에 대한 낮은 기대치, 자기결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 훈련의 부족함 등으로 자기결정을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는 실행도는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많이 부족했다.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와 실행도 사이의 이러한 격차는 국내외 논문들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셋째,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국내외 문화적 맥락에 따라 유사점이나 차이점이



[그림 1]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및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현장적용 및 미래 연구 방향

있는지 분석한 결과 학생변인, 교사변인, 환경변인 등에서 비교적 유사점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문화-가족변인과 관련해서는 서양과 동양문화라는 대립되는 문화적 구조가 전제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적 정서와 전통이 자기결정 교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서구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화적 차이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문화변인과 관련된 구체적 쟁점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교사변인에서 교사유형 및 경력에 대한 국내 연구가 없었다. 또한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요인들은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장애학생의 자기결정력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자기결정을 위한 기회제공 및 실행도와도 상호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헌분석을 통해 발견된 이상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적용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본 논문의 제한점들을 염두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문헌분석 선정과정에서도 언급했듯이,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들이 배제되어 이 결과를 모든 문화적 맥락에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국내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와 핵심 키워드들을 통해 분석을 위한 논문들을 검색하였으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되지 않은 다른 논문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문헌 선정기준에 의해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일괄 선정하였으므로 각 논문들의 질적 수준을 통제할 수 없었다.

이상의 제한점들을 전제하면서, 앞에서 문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이 자기결정에 대한 현장적용과 미래연구를 위한 제언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자기결정의 현장적용을 위한 제언

국내외 문화적 맥락에서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비교와 자기결정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자기결정의 현장적용을 위하여 1) 교사교육 및 훈련, 2) 부모 참여, 3) 자기결정의 조기중재, 4) 개별화교육계획 및 개별화전환교육계획과의 연계, 5) 가정과 학교와의 협력 등과 관련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1) 교사교육 및 훈련

앞에서 살펴봤듯이 자기결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와 실행사이의 격차가 국내외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기결정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지도하지 않는 이유들이 자기결정을 전적인 독립성이나 통제로 오해 하는 것(Wehmeyer et al., 2001)과 장애학생들에 대한 낮은 기대, 훈련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고려 할 때,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부모참여와 지원

교사교육 및 훈련 뿐 만 아니라 부모의 참여와 지원 또한 중요하다. 대학생이된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 후배들에게 해주는 제언들에서도 부모지원의 중요성을 강조 했으며(Thoma, & Getzel, 2005), 학습장애 남학생들도 전환교육에서의 부모참여의 중요성을 지적했다(Trainor, 2005). 특히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자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Leake, & Boone, 2007),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중요한 결정권에서 부모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경우, 장애학생의 목소리를 청중하면서 또한 부모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부모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이를 통해 학생의 전환에 대한 바른 기대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3) 조기 중재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장애학생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자기결정이 더 중요시되고, 자기결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기결정이 생애전반에 걸쳐 학습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중고등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유치원 및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결정 및 자기결정 행동의 구성요소들이 지도될 수 있도록 조기중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Carter et al.(2006)이 제시한 것처럼 정기적으로 자기결정을 평가하여 꾸준한 발전양상을 파악하는 것도 생애전반에 걸쳐 자기결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한 방법이라 하겠다.

(4) 개별화교육계획 및 개별화전환교육계획과의 연계

자기결정이 생애전반에 걸쳐 학습되어야하고, 또 나이가 많을수록 중요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조기 중재와 함께 개별

화교육계획 및 개별화 전환계획에 자기결정을 위한 계획을 구상하여 자기결정의 지도가 장애 학생의 일반학급이나 개별화교육계획 및 전환교육계획과 서로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성직, Wehmeyer(2003)가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전환계획 및 자기결정 프로그램의 실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가정과 학교와의 협력

국내의 문화적 맥락에서 자기결정에 대한 연구를 살펴봤을 때 학생의 자기결정 및 전환에 대하여, 또한 자기결정을 지도하는 기회와 관련하여 부모나 교사들의 입장에 서로 상이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Carter, Lane, Pierson, & Glaeser, 2006). 이런 점을 고려 할 때, 학교와 가정간의 협력이 장애학생의 자기결정 증진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2. 자기결정의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

(1) 우리 문화적 맥락에서의 자기결정에 대한 이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변인, 교사변인, 환경변인 등에서는 국내의 문헌간의 유사점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동양문화 속에서 자기결정이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해 국외문헌에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정작 자기결정의 개념이 우리 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조사한 국내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전통 및 문화적 배경, 가족 및 정서적 배경에서 어떻게 자기결정이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할지, 나아가 자기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사회가 급격히 다문화 되어가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도 국내의 다문화배경을 가진 장애인들에 대한 인종변인별 연구를 시도해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의 확장

연구주제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에서도 다양화가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국내는 문의 경우, 학생이나 부모들을 주 대상으로 한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관련 연구가 거의 없었다. 국외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 연구에서도 자기결정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기결정의 가치, 중요성, 실행에 대해 학생자신들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구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대부분 고등학교 정신지체 학생들이 주 대상이었다는 점이였다. 앞에서도 논의했듯이 자기결정이 생애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초등학생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외연구의 경우 일반교사와 특수교사를 모두 포함한 연구가 있었던 것에

비해 국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들은 모두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 장애학생의 통합이 활성화 되고, 학교 프로그램안에 자기결정이 녹아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연구방법의 다양화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관련 연구들에서 국외논문의 경우 14편중 5편(36%)이 질적연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질적연구를 사용한 연구가 단 한편도 없었다. 장애학생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듣고, 보다 심층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질적연구가 유용하다는 것을 고려하여(Lin, 2005; Zhang, 2005, Carter et al., 2006; Trainor, 2007; Lloyd, Gatherer, & Kalsy, 2006), 학생이나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4) 효과적인 중재방법 및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교사교육과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중재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교사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자기결정 중재방법 및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상으로 국내외 문화적 맥락에서 장애학생, 부모, 교사가 자기결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자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문화적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현장적용과 미래연구의 방향들을 모색해왔다. 제안된 현장적용 방안들을 고려하여 우리 문화적 맥락에서 자기결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모든 과정 가운데 다음 두 가지 원칙을 염두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첫째, 자기결정은 장애학생 개인의 능력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것으로 장애 경중에 상관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기대를 잃지 않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Leake 와 Boone(2007)가 언급했듯이 다른 문화 간 차이뿐만 아니라 같은 문화 내에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문화적 맥락안에서 자기결정을 이해하되, 장애학생에 대한 접근은 어디까지나 개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의 문화적 맥락에서 자기결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노력들을 통해 특수교육현장에서 자기결정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자리 잡고, 자기결정이 우리 문화적 맥락속에서,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개별화된 접근을 중시하면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강순원 (2008). 공생, 평화, 인권 향환 다문화교육을 바란다. *우리교육*, 27-31.
- 김경숙, 안은영, 이영선 (2008).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 유아들의 행동특성과 이들을 위한 교수활동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8(1), 1-24.
- 김지현 (2008).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와 교육. *철학연구*, 106, 29-52.
- 교육인적자원부 (2006). '다문화가정 지원대책' 보도자료. <http://www.moe.go.kr>.
- 성태제, 시기자 (2006).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이숙향 (2008). 장애학생의 일반교육과정 접근과 전환을 위한 자기결정 증진의 영향 및 효과적 중재방안 고찰. *특수교육학연구*, 43(1), 233-263.
- 이은혜, 이미리, 박소연 (2006). *아동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이지혜, 채재은 (2007). 다문화가정시대 문해교육의 대안적 접근: 영미의 가족문해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7(1), 29-52.
- Browder, D. M., 쟁, W., M., Test, D. W., Karvonen, M., & Algozzine, B. (2001). Reviewing resources on self-determination: A map for teachers.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22, 233-244.
- Frankland, C., Turnbull, A., Wehmeyer, M., & Blackmountain, L. (2004). An exploration of the self-determination construct and disability as it relates to the Dine' (Navajo) culture. *Education and Training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9, 191-205.
- Harry, B., Rueda, R., & Kalyanpur, M. (1999). Cultural reciprocity in sociocultural perspective: Adapting the Normalization principle for family collaboration. *Exceptional Children*, 66, 123-136.
- Lee, S., Wehmeyer, M. L., Palmer, S. B., Soukup, J. H., & Little, T. D. (In press). Self-determination and access to the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2(2).
- Lloyd, V., Gatherer, A., & Kalsy, S. (2006). Conducting qualitative interview research with people with expressive language difficultie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6, 1386-1404.
- MacGugen, M. K. (1991). Self-determination and cultural relevance. Albuquerque, NM: 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
- Nisbett, R. E., & Miyamoto, Y. (2005). The influence of culture: Holistic versus analytic

- percep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9(10), 467-473.
- Ohtake, Y., & Wehmeyer, M. L. (2004). Applying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to Japanese special education contexts: A four-step model. *Journal of Policy and Practice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1, 169-178.
- Rogers-Adkinson, D.L., Ochoa, T.A., & Delgado, B. (2003). Developing cross-cultural competence: Serving families of children with significant developmental needs.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18, 4-8.
- Stancilffe, R. J. (2001). Living with support in the community: Predictors of choice and self-determinatio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search Reviews*, 7, 91-98.
- Turnbull, A.P., & Turnbull, H.R. (1996). Self-determination within a culturally responsive family systems perspective: Balancing the family mobile. In L.E. Powers, G.H.S. Singer, & J. Sowers (Eds.), *On the road to autonomy: Promoting self-competence in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pp. 195 - 220). Baltimore, MD: Paul H. Brookes
- Turnbull, R. & Turnbull A. (2001). Self-determination for individuals with significant cognitive disabilities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Severe Handicaps*, 26, 56 - 62.
- Zhang, D., & Benz, M.R. (2006). Enhancing self-determination of culturally diverse students with disabilities: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Focus on Exceptional Children*, 38, 1-12.
- Ward, M.J., & Kohler, P.D. (1996). Teaching self-determination: Content and process. In L.E. Powers, G.H.S. Singer, & J.-A. Sowers (Eds.), *On the road to autonomy: Promoting self-competence in children and youth with disabilities* (pp. 275-290). Baltimore, MD: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Ward, M. J. (1996). Coming of age in the age of self-determination: A historical and personal perspectives. D.J. Sands, & M. L. Wehmeyer (Eds.), *Self-determination across the life span: Independence and cho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p. 3-16). Baltimore, MD: Paul H. Brookes
- Wehmeyer, M. L. (2005). Self-determination and individual with severe disabilities: Reexamining meaning and misinterpretings. *Research and Practice in Severe Disabilities*, 30, 113-120.
- Wehmeyer, M. L. (2007). *Promoting self-determination in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Wehmeyer, M. L., Agran, M., & Hughes, C. (1998). *Teaching self-determination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Basic skills for successful transition*. Baltimore, MD: Paul H. Brookes.
- Wehmeyer, M. L., & Field, S. (2007). *Self-determination: Instructional and assessment strategies*. Thousand Oaks, CA: Corwin Press.
- Wehmeyer, M. L., Field, S., Doren, B., Jones, B., & Mason, C. (2004). Self-determination and student involvement in standards-based reform. *Exceptional Children, 70*, 413-425.
- Wehmeyer, M. L., & Palmer, S. B. (2003). Adult outcomes for students with cognitive disabilities three years after high school: The impact of self-determination. *Education and Training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8*, 131-144.
- Wehmeyer, M. L., & Schwartz, M. (1997). Self-determination and positive adult outcomes: A follow-up study of youth with mental retardation or learning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63*, 245-255.

* 분석 대상 논문 목록

- 김영표, 신현기 (2003). 정신지체 고등학생의 자기결정 수준. 특수교육요구아동연구, 19-36.
- 김정권, 조인수, 문태형, 김혜경 (2001). 발달지체학생 자기결정능력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36(1), 127-146.
- 김혜경 (2005). 장애고등학생의 장애유형별 자기결정능력 비교분석. 정신지체연구, 7, 193-209.
- 박성우, 김창호(2003). 정신지체 학생의 성인기 전환을 위한 전환계획과 자기결정력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수준비교. 특수교육연구, 10(1), 169-192.
- 박성우, 신현기 (2003). 정도 정신지체인의 고용상태와 거주형태에 따른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 비교. 특수교육학연구, 38(3), 259-281.
- 방명애 (2001). 정신지체아동의 지체정도와 학교급간이 의사결정기술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36(1), 147-168.
- 오정민, 박은혜 (2003). 자기결정에 대한 특수교육 교사의 중요도 인식 및 교수 실행도에 관한 조사. 아시아교육연구, 4(1), 17-39.
- 유애란 (2003). 전환교육에 있어 발달장애학생의 자기결정에 대한 교사인식과 교수실행. 한국직업재활학회, 13(2), 183-209.
- 이정원, 정병국 (2006). 지체부자유학생과 일반학생의 가족체제유형에 따른 자기결정능력의 비교.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47(1), 185-200.
- Agran, M., Snow, K., & Swaner, J. (1999). Teacher perceptions of self-determination: Benefits,

- characteristics, strategies. *Education and Training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4, 293-301.
- Bae, S. J., & Wehmeyer, M. (2003). Perceptions of self-determination on transitional outcomes: A study of Korean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특수교육연구*, 10(2), 123-141.
- Carter, E. W., Lane, K. L., Pierson, M. R., & Glaeser, B. (2006). Self-determination skills and opportunities of transition-age youth with emotional disturbance and learning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72, 333-346.
- Grigal, M., Neubert, D. A., Moon, M. S., & Graham, S. (2003). Self-determin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Views of parents and teachers. *Exceptional Children*, 70, 97-112.
- Leake, D., & Boone, R. (2007). Multicultural perspectives on self-determination from youth, parent, and teacher focus groups. *Career Development for Exceptional Individuals*, 30, 104- 115.
- Lin, H. (2005). The self-determination for youth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aiwan. *International Journal of Diversity in Organizations, Communities and Nations*, 5(1), 1-16.
- Shogern, K.A., Wehmeyer, M.L., Palmer, S. B., Soukup, J. H., Little, T.D., Garner, N., & Lawrence, M. (2007). Examining individual and ecological predictors of the self-determin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73, 488-508.
- Thoma, C. A., & Getzel, E. E. (2005). "Self-determination is what it's all about": What post-secondary students with disabilities tell us are important considerations for success. *Education and Training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40, 234-242.
- Trainor, A. A. (2005). Self-determination perceptions and behaviors of diverse students with LD during the transition planning proces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8, 233-249.
- Trainor, A. A. (2007). Perceptions of adolescent girls with LD regarding self-determination and postsecondary transition planning. *Learning Disability Quarterly*, 30, 31-45.
- Zhang, D. (2005). Parent practices in Facilitating Self-Determination Skills: Th influences of Culture, Socioeconomic status, and children's special education status, *Research & Pract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30, 154-162.
- Zhang, D., Wehmeyer, M. L., & Chen, L. (2005). Parent and teacher engagement in fostering self-determin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 comparis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China.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26, 55-64.
- Wehmeyer, M. L., Agran, M., & Hughes, C. (2000). A national survey of teachers' promotion

of self-determination and student-directed learning.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4*, 58-68.

Wehmeyer, M. L., & Bolding, N. (1999). Self-determination across living and working environments: A matched-samples study fo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Mental Retardation, 37*, 353-363.

Wehmeyer, M. L., & Garner, N. W. (2003). The impact of personal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on self-determination and autonomous functioning.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16*, 255-265.

* 논문접수 2008년 11월 1일 / 1차 심사 2008년 12월 5일 / 2차 심사 2009년 2월 20일 / 게재승인 2009년 3월 3일

* 이숙향: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특수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University of Kansas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전임강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Self-determination and access to the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장애학생의 일반교육 과정 접근과 전환을 위한 자기결정 증진의 영향 및 효과적 중재방안 고찰" 등이 있다.

* e-mail: deepjoy@ewha.ac.kr

Abstract

A Review on Cross-Cultural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s of Self-Determination

Lee, Suk-Hyang*

Promoting self-determin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has been considered as a best practice for successful transition to adulthood and in improving quality of life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Given that self-determination was based on western cultural background,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and implement self-determination within each country's own cultural context. In this resp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self-determination within Korean cultural contexts through cross-cultural comparison of perception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ir parents, and teachers regarding self-determination, in order t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promoting self-determination of students disabilities. For this purpose, a total of 24 articles were identified and analyzed, which addressed perceptions of self-determinations and possible factors that influenced self-determina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s result of analyses of the articles, the following information was provided including: (a) current trend of research about self-determination, (b) cross-cultural comparison of perceptions of self-determination, (c) factors that influenced self-determination, and (d) implications for application of and future research on self-determination.

Key words: Self-Determination, Students with disabilities, Multiculture, Perceptions

* Ewha Womans University,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Full-time Instructor